

댓글이 스무남은개나 달렸네요. 그런데 댓글에 대한 댓글이 절반 가까이 되나봅니다. 저도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또 제 그 글에 대한 댓글이 주욱 올라왔네요.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은 “저의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댓글(좀 숨가쁘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이지만 동시에 조이한씨의 글에 대한 댓글이기도 한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씁니다. 음, . 다시 말해서 자유게시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겁니다. 저는 앞으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하게되면 자유게시판 문제를 제일 먼저 의제로 올릴려고 합니다! (조이한님이 글 말미에 운영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생각과 각오(!)로 미술인 회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혀보라는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조이한 님의 말씀에 좀 긴장을 먹어서, 쓰다보니 쫘 딱딱한 말투가 되네요.) 다같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토론방이니 공지사항방이니 있지만 자유게시판에 비해 현저히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썰~렁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없는 곳이다 보니 잘 안가게되고 습관적으로 자유게시판만 들렀다 나가게 되지요. 왜 재미가 없는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직접 느낀바 있으니 설명이 불요할 듯합니다. 요컨대 제 의견은 자유게시판의 그 따끈따끈한 분위기에 토론방이며 공지사항이며 기타의 것들을 섞어 풀어놓자는 애깁니다. 저는 ‘기타의 것들’에 운영위원회 게시판도 포함 시키고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의견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줄기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게시판의 ‘좋은 역할’은 ‘우려되는 점’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론 사사로운 이야기와 의견이 오가는 이 자유게시판의 사사로움의 자유야말로 자유게시판의 활력의 요소이며 이른바 공식적인 것들이(예컨대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혹은 현안 문제 등) 회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만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약간 흥분하는군요...좀 더 주밀하고 설득력있는글이 되질 않네요. 박불똥님!님께서 지난번에 실무위게시판에 올렸던 자유게시판에 대한 글, 여기도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조이한님의 글에 단 댓글에서 ‘공과 사를 딱부러지게 구별말고 운운...’에서 공과 사는 이런 맥락에서 쓴것입니다.

어쨌든 미술인 회의가 ‘일부 일하는 사람과 대다수의 무관심한 회원’ 구도로 가지않으려면 (그런 우려의 말들을 좀 듣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유게시판만 들어오면 미술인 회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은 열심히 자유게시판에 무슨 내용이든지간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게시판을 따끈따끈하게 (때론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것이 그들의(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네, 또 흥분 하는군요) 저는 다른 단체와 미술인 회의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첫번째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했으며 앞으로도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될 틀을 가지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인회의 홈페이지 중심이 자유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건 그냥 회원이건 모두가 거기서 놀면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한다고 이 연사 힘주어 웨치는 바입니다.